

韓國經濟의 成長要因分析(1963~92)

洪 性 德

우리나라 經濟는 1960년대초 이후 거의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이룩하여 왔다. 이와 같은 高度成長이 가능하였던 原因으로서는 1960년대초 이후 輸出主導型 工業化政策의 계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들 수 있으며, 또한 政治的, 社會·經濟的 여건과 요인들도 高度成長에 寄與했을 것이다. 本稿는 人的 및 物的 賦存資源條件과 그에 따른 資源의 配分 및 生産性變化 등과 관련된 우리나라 經濟成長要因別 寄與度를 Edward F. Denison의 접근방법에 의해서 추정했으며 1963~92년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접근방법으로 추정한 1963~82년간에 대한 Kim and Park(1985)의 측정결과를 수정발표된 國民計定資料에 의해서 1972년부터 수정하고 1992년까지 연장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과거 우리나라의 高度成長要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과, 先進國家의 成長要因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一般的인 經濟成長過程의 보다 확실한 이해를 위한 자료로서, 또는 우리나라의 將來 成長潛在力을 展望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 序 論

우리나라 經濟는 1960년대초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高度成長을 지속하여 1963~79년간 實質國民總生産 成長率은 연평균 9.3%를 달성하였다. 이에 대해서 1979~92

년간에는 연평균 8.0%로 成長勢가 鈍化되었으나 全期間(1963~92)의 우리 경제는 연평균 8.7%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였다. 人口增加를 감안한 1人當 國民總生産增加는 전기간에 걸쳐 7%를 상회하여 1985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1992년의 1人當 國民總生産額은 340萬원 수준이며, 美國 달러로는 3,905달러로 1963년의 254달러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960년대초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예외적인 몇년을 제외하면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筆者：本院 專門研究員

* 本 研究를 위해서 연구진행과정에서 조언과 비판을 해준 本院의 朴堉卿 博士와, 草稿의 처음부터 끝까지 成長要因 推定方法과 分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諮問해 주신 慶熙大學校의 金光錫 教授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달성할 수 있었던 主要要因들은 1960년대 전반 이후 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을 채택하고 계속적으로 同 戰略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데 원인이 있으며, 또한 社會構成員의 價値觀, 社會慣習, 國內政治情勢 등 많은 경제외적 요인과 國際經濟環境, 우리의 경제적 여건과 요인도 高度成長을 지속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本稿는 우리나라 經濟의 成長要因을 要素投入增加와 生産性增加要因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성장기여도의 추정을 통하여 지난 30년간 高度成長을 지속시킨 주요요인들

을 규명하고, 요인별 성장기여도의 변동을 추정·분석하고자 한다. 넓은 의미에서 경제성장에는 經濟外的인 요인들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그런 요인을 무시하고 經濟內的 成長要因만을 분석코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972~92년간의 우리나라 經濟成長要因을 추정하고 과거의 추정 분석자료(Kim and Park, 1985)를 인용하여 1963~72년간을 연결함으로써 1963~92년간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요인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¹⁾ 그러나 勞動投入의 경우 就業勞動力의 年齡基準이 14세에서 15세로의 변경과 부문별 要素所得과 所得配分率 등 기타 부문 추정자료를 감안할 때, 1972~92년간의 추정결과와 과거 1963~72년간에 대한 추정결과를 직접 연결시켜 비교하는 데는 일부 이용자료의 一貫性 문제가 있음을 밝혀 둔다.

生産側面에서 經濟成長要因을 추정·분석하는 데는 여러가지 접근방법이 있으나 그중에서 Edward F. Denison의 접근방법을 이용하였다.²⁾ Denison의 접근방법에서도 生産函數가 가정된다. 그러나 특정생산함수가 計量的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線型同次(linear homogeneous) 生産函數가 諸要因의 生産增加에 대한 寄與率을 추정하기 위한 分析體系 또는 會計樣式으로서 사용되고 있다.³⁾ 線型同次 生産函數와 完全競爭 要素市場의 가정 아래서 투입요소의 상대가격은 투입요소의 限界生産性を 반영하며, 따라서 투입요소에 배분된

- 1) Kim and Park(1985)에서는 1975년 不變價格 기준의 國民所得成長에 대한 1963~82년간의 요인별 成長寄與度를 추정하였으며, 1963~72년간의 추정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새로이 추정한 1972~92년간의 成長要因別 寄與度와 全期間(1963~92)의 成長要因別 寄與度를 연장하였다.
- 2) 先進國의 경제성장요인을 추정·분석한 著書 Denison(1967), Denison(1974), Denison and Chung(1976)과 Denison(1979)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우리나라 經濟의 成長要因을 추정·분석한 저서로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金光錫·朴俊卿, 1979)과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Kim and Park, 1985) 및 『韓國經濟의 要素生産性 成長要因推定』(洪性德, 1991) 등이 있으며, 본 연구는 이들 저서의 추정방법과 기초자료 및 成長要因分類方式에 의해서 成長要因을 분석하였다.
- 3) 生産函數의 計量的 推定에 의한 성장요인분석은 測定生産函數의 설정, 標本期間, 推定方法에 따라 生産函數 母數의 推定値가 큰 변동을 보이므로 國家간 또는 時系列상의 성장요인비교에 적합하지 않다. 성장요인 또는 생산성증가요인 추정을 위한 여러 접근방법에 대하여는 Nadiri(1970) 참조.

소득의 합은 生産物價値와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生産增加率은 所得配分率로 加重한 生産要素의 投入量增加率의 평균과 生産性增加率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가율간의 등식으로부터 각 生産要素의 所得配分率과 投入量增加率의 곱이 해당 生産要素의 성장기여도로 정의되고, 이들의 합이 總要素投入增加의 성장기여도가 된다. 한편 國民總生産成長率 중에서 總요소투입 성장기여도로 설명되지 않는 殘餘分을 總要素生産性增加, 즉 總投入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의 성장기여도로 정의된다. Denison 접근방법에서는 성장요인을 5개 生産要素의 투입증가와 10여개의 生産성 증가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⁴⁾ 生産성 증가요인 중에서 勞動의 質的 變化는 勞動投入增加要因으로 분류하며, 資本의 質的 變化는 직접 추정되지는 않으나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항목에 분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장요인의 추정방법과 기초자료의 출처 등과 要素別 所得配分率(income share), 각 要素投入量의 추계방법 등에 관한

4) 生産性變化의 추정과 관련하여 Denison의 성장요인분석에 대한 批判은 D. Jorgenson, Z. Griliches and E. Denison, *The Measurement of Productivity*,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 C., 1972 참조. 生産函數를 하나의 分析的 體系로만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Jorgenson-Griliches(1967)의 방법과 비슷하나 실제 내용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Jorgenson-Griliches는 投入要素, 특히 資本의 集計와 價格測定상의 차이를 적절히 調整함으로써 모든 技術變化要因을 要素投入變化로 설명코자 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部門別 國民所得의 概念

國民經濟가 일정 기간중에 生産한 生産物의 가치는 國民計定統計에서 固定資本消耗의 공제여부, 海外純受取要素所得의 포함여부, 가격평가기준 등의 여러가지 평가기준에 따라서 國民總生産(gross national product), 國內總生産(gross domestic product), 國民純生産(net national product), 國內純生産(net domestic product), 國民所得(national income) 등 여러가지 개념으로 측정할 수 있다. 國民所得은 生産費用의 측면에서 일정기간 居住者가 제공한 勞動, 資本 및 土地 등 여러가지 生産要素에 대한 諸支給을 要素費用으로 평가된 國民純生産物의 價値(net national product at factor cost)로서, 여러 總量指標 중에서 국민경제의 실질생산의 장기적 변동을 파악하는 데 가장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國民計定統計에서는 國民所得이 經常要素費用으로만 추계되고 있으므로 1971~92년까지의 不變要素費用에 의한 국민소득의 時系列은 다음과 같이 추계하였다. 우선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과 요소소득자료에서 경상가격 고정자본소모를 고정자본형성의 환가지수(deflator)를 이용하여 불변가격시계열로 환가하고, 國內總生産에

서 「간접세-보조금」을 공제한 요소비용 국내총생산의 환가지수를 구하여 경상요소비용 국내총생산을 不變要素費用 國內總生産으로 환가한다. 끝으로, 불변요소비용 국내총생산에서 불변고정자본소모를 감하여 요소비용에 의한 국내소득을 구했으며, 여기에 不變要素費用 海外純受取要素所得을 가산하여 不變要素費用 國民所得 時系列을 추정했다.

國民所得 중 일부 小部門에서 발생한 所得은 각기 그 實質價値가 한가지 생산요소의 투입증가만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小部門의 국민소득은 한가지 생산요소에 대한支給만으로 구성되며 生産性變化와는 무관하거나 중요하지 않으므로 불변가격 시계열의 추계에서 生産性不變이 가정된다. 따라서 이들 小部門은 국민소득의 成長要因分析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취급해야 한다. 산업별 요소소득추정에서 政府서비스生産者, 民間非營利서비스生産者, 住宅所有, 海外部門과 産業部門의 일부 사회서비스의 소득들이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政府서비스生産者部門의 요소소득은 公共行政 및 國防, 教育, 醫療衛生, 社會福祉, 文化서비스 및 기타부문의 피용자보수만으로 구성되며, 民間非營利서비스生産者部門도 피용자보수만 계상된다. 한편 新國民所得計定에서는 산업부문으로 구분된 教育, 醫療, 企業 및 專門團體, 傭부문의 요소소득도 피용자보수만으로 계상된다. 따라서 海外部門의 純受取 被傭者報酬를 포함하여

「政府·民間非營利團體 및 海外部門」으로 구분할 때 경상요소비용 國民所得은 단순히 피용자보수의 집계액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불변가격에 의한 추계는 公共行政 및 國防部門에 있어서는 1인당 給與額의 指數를 환가지수로 사용하며, 社會서비스부문에서는 대체로 敎員數, 醫師數 등 취업자수의 증가율을 몰량증가율로 사용하여 기준년 附加價値를 연장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따라서 이런 항목의 國民所得의 實質增加는 취업자수의 증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住宅所有部門과 海外純投資收益部門은 資本所得(capital income)만으로 구성된다. 住宅所有部門에는 不動產 賃貸業에서 발생하는 實際支拂賃料와 住宅所有主의 자가주택 사용에서 발생하는 歸屬賃料(imputed rent)가 계상된다. 住宅所有主 자신이 사용하는 住宅用役(housing service)은 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지만 國內生産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주택소유로부터 임료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은 임료지불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歸屬計算한다. 國民所得에는 總賃料收入에서 經費, 減價償却 및 諸稅가 공제된 純賃料가 계상된다. 불변가격에 의한 附加價値는 각년의 住宅棟數(housing stock)의 증가로만 설명된다. 한편 海外部門의 投資收益은 해외순자산액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각 小部門의 소득항목들은 勞動, 住宅과 海外資産 등 세가지 相違한 사용요소별로 묶어서 각각의 成長率과

成長寄與度を 측정하고 세 부문의 成長率과 그 寄與도는 각기 生産生産요소 的 투입증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 세 부문의 국민소득이 분리된 나머지 대부분의 國民所得은 企業의 生産販賣活動에서 創出된다. 政府의 企業的 活動도 여기에 포함되며 주택 소유부문에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企業活動이 포함된다. Denison은 이 부문을 「非住宅企業部門」(nonresidential business sector)으로 정의하고 있다.

企業의 生産販賣活動은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영위되므로 이 非住宅企業部門의 附加價値는 시장거래액으로부터 추계될 수 있다. 이 부문은 여러 生産要素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生産性變化는 중요한 成長要因이 된다. 成長要因分析의 主課題는 이 부문의 국민소득성장을 결정하는 諸要因의 變動을 파악 측정하고 이들 성장요인의 성장기여도를 측정·분석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國民所得은 ①政府·民間非營利서비스生産者와 산업부문 일부 사회서비스, 海外部門의 被傭者報酬額, ②住宅所有로 인한 賃料所得, ③海外純投資收益 등의 세 小部門과 國民所得에서 이들 小部門의 勞動所得(被傭者報酬額)과 資產所得(賃料所得과 投資收益)을 공제한 나머지, ④非住宅企業部門 등 4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1985년 불변요소비용에 의한 시계열과 1963~92년간의 연평균성장률을 <表 1>에서 보여주고 있다.

<表 1>에 의하면 1963~92년간중 實質國民所得은 연평균 8.26%의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이 기간중 非住宅企業部門은 연평균 9.21%의 급신장을 기록하여 國民所得에서 점하는 비중이 1992년에는 88%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기간별로는 1963~72년간에 實質國民所得은 연평균 8.22%로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1972~82년간은 연평균 7.09%로 1.13%포인트 낮은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2~92년간에는 前期(1972~82)보다 2.40%포인트가 높은 9.49%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는 前期중의 1972~78년간에는 연평균 9.66%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内外與件이 불리하였던 1979~82년간에는 연평균 3.36%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데 비하여, 後期(1982~92)중 1982~88년간의 연평균 10.74%에 달하는 높은 成長으로 成長率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동 기간중 非住宅企業部門의 成長率은 實質國民所得과 같은 變化趨勢를 보여주었다. 즉 1963~72년간에는 9.07%의 급신장을 기록하였으며, 1972~82년간에는 8.81%로 前期보다 낮은 成長率을 보였으나 1982~92년간에는 9.75%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한편 海外純投資收益은 外資導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 이후 元利金償還 및 果實送金이 증가함에 따라 支給超過額이 크게 늘어나 1982년에는 국민소득의 -5.77% 규모에 달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1992년에는 그 비중이 -1.35%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政府·民間非營利

〈表 1〉 部門別 不變要素費用에 의한 國民所得

(단위 : 10億원)

	國民所得		政府·民間非營利 團體및海外部門		住宅所有		海外純投資		非住宅企業部門		海外純投資에의 國民所得	
	(1)		(2)		(3)		(4)		(5)=(1-2-3-4)		(6) = (1-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71	22590.97	100.00	4987.53	22.08	1481.21	6.56	-207.90	-0.92	16330.13	72.29	22798.87	100.92
1972	23693.90	100.00	5121.04	21.61	1510.06	6.37	-304.00	-1.28	17366.80	73.30	23997.90	101.28
1973	26699.60	100.00	5154.14	19.30	1553.82	5.82	-307.20	-1.15	20298.84	76.03	27006.80	101.15
1974	28910.74	100.00	5264.84	18.21	1608.21	5.56	-332.70	-1.15	22370.39	77.38	29243.44	101.15
1975	30712.00	100.00	5447.50	17.74	1646.13	5.36	-559.30	-1.95	24217.67	78.85	31311.30	101.95
1976	34368.98	100.00	5604.24	16.31	1697.36	4.94	-603.40	-1.76	27670.78	80.51	34972.38	101.76
1977	37515.56	100.00	5810.58	15.49	1721.43	4.59	-753.10	-2.01	30736.65	81.93	38268.66	102.01
1978	41194.89	100.00	6116.51	14.85	1807.27	4.39	-819.70	-1.99	34090.81	82.75	42014.59	101.99
1979	43873.36	100.00	6417.05	14.63	1886.12	4.30	-1115.40	-2.54	36685.59	83.62	44988.76	102.54
1980	42141.76	100.00	6573.28	15.60	1951.09	4.63	-1846.00	-4.38	35463.39	84.15	43987.76	104.38
1981	44323.62	100.00	6893.01	15.55	2009.83	4.53	-2411.20	-5.44	37831.98	85.35	46734.82	105.44
1982	47020.64	100.00	7269.70	15.46	2060.35	4.38	-2715.10	-5.77	40405.69	85.93	49735.74	105.77
1983	52669.88	100.00	7643.55	14.51	2127.25	4.04	-2574.30	-4.89	45473.38	86.34	55244.18	104.89
1984	57104.17	100.00	7931.43	13.89	2207.03	3.86	-2901.80	-5.08	49867.51	87.33	60005.97	105.08
1985	60755.00	100.00	8381.46	13.80	2259.80	3.72	-3092.00	-5.09	53205.74	87.57	63847.00	105.09
1986	68730.03	100.00	8886.83	12.93	2322.82	3.38	-3131.00	-4.56	60651.38	88.25	71861.03	104.56
1987	77193.24	100.00	9221.41	11.95	2433.56	3.15	-2576.90	-3.34	68115.17	88.24	79770.14	103.34
1988	86728.02	100.00	9789.00	11.29	2556.84	2.95	-1895.40	-2.19	76277.58	87.95	88623.42	102.19
1989	92645.96	100.00	10432.46	11.26	2730.12	2.95	-1334.60	-1.44	80817.98	87.23	93980.56	101.44
1990	102076.58	100.00	10991.20	10.77	2953.40	2.89	-1225.00	-1.20	89356.98	87.54	103301.58	101.20
1991	111184.92	100.00	11424.30	10.28	3521.77	3.17	-1372.30	-1.23	97611.15	87.79	112557.22	101.23
1992	116419.41	100.00	11960.68	10.27	3556.56	3.05	-1573.90	-1.35	102476.07	88.02	117993.31	101.35
年平均 成長率 및 構成비(%)												
63~72	8.22	100.00	6.14	15.12	3.21	3.11	.	-0.29	9.07	82.06	8.44	100.29
72~82	7.09	100.00	3.57	16.40	3.16	4.86	.	-2.95	8.81	81.69	7.56	102.95
82~92	9.49	100.00	5.11	11.91	5.61	3.29	.	-2.80	9.75	87.59	9.02	102.80
72~92	8.29	100.00	4.33	13.24	4.38	3.76	.	-2.73	9.28	85.73	8.29	102.73
63~92	8.26	100.00	4.89	13.34	4.01	3.63	.	-2.45	9.21	85.48	8.33	102.45

註 : 1963~72년간의 기간중 年平均 構成비와 成長率은 Kim and Park(1985)의 1975년 不變價格基準이며, 1963~92년간의

年平均 構成비와 成長率은 각 구간의 成長率로 延長한 것임.

資料 : 한국은행, 『국민계정』 資料와 KDI. DB 참조.

團體 및 海外部門의 被傭者報酬는 1963~92년간 연평균 4.89%씩 성장하였으나 그 상대적 비중은 10.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4.01%의 성장을 보인 住宅所有部門도 國民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3.1%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Ⅲ. 要素別 所得配分率

國民所得의 4개 部門別 분류 중 非住宅企業部門을 제외한 다른 部門의 所得은 規模가 상대적으로 작고 또한 대체로 한가지 生産要素에 대한 支給만으로 구성되며, 生産性 變化와는 무관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非住宅企業部門만은 그 소득의 상대적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여러 生産要素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生産性 變化도 중요한 成長要因이 된다. 따라서 成長要因推計를 위해서는 먼저 이 非住宅企業部門의 要素別 所得配分率(income share)부터 추계해야 한다.

〈表 2〉에서는 1963~92년간의 우리나라 非住宅企業部門 國民所得의 生産要素別 所得配分率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 부문의 國民所得은 勞動, 構造物 및 裝備(有形固定資産)와 在庫資産을 포함하는 再生産可能資本, 그리고 土地 등 生産요소별로 배분되고 있다. 그런데 이 표의 所得配分率은 年度別, 要因別로 추정결과를 5개

年 移動平均하여 異例의인 연도의 특성을 평균화시킨 것이다.

우리나라 非住宅企業部門 勞動所得配分率이 1963~92년간에 평균 62.70%로 기간 중 다른 要素別 所得配分率보다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소득배분율을 期間別로 구분하여 보면 1963~72년간에는 60.69%이던 것이 중간기간(1972~82)에는 61.68%로, 후기(1982~92)에는 65.40%로 증대되고 있다. 이를 연대별로 變化를 보면 1960년대는 61% 수준이고, 1970년대는 1% 포인트 증가한 62%이며, 1980년대는 65% 수준으로 1970년대보다 3%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1990년대초는 前年代보다 3~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의 所得配分率을 나타내는데, 이는 1960년대의 日本의 노동소득배분율보다는 낮으나 상당히 접근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表 3 참조). 그런데 이러한 노동소득배분율에는 非住宅企業部門의 被傭者에 대한 모든 報酬뿐만 아니라 農業部門과 非農業非法人企業의 自營業主 및 無給家族從事者의 勞動所得 해당분도 추계하여 포함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農業部門은 거의 전부가 非法人企業에 의해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고, 또한 非農業部門에서도 商業部門, 個人서비스業部門 및 일부 製造業部門에서도 零細企業에 의해서 영위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소득배분율의 추계는 이들 非法人企業의 自營業主 및 無給家族從事者의 노동소득 해당분의 정확한 추계 없

〈表 2〉 非住宅企業部門 要素別 所得配分率

(단위 : %)

	勞 動 (1)	構造物·裝備 (2)	在庫資産 (3)	土 地 (4)	國民所得 (5) = (1+~+4)
1971	61.98	14.60	10.86	12.56	100.00
1972	62.20	14.78	10.90	12.12	100.00
1973	62.16	14.90	10.66	12.28	100.00
1974	61.50	15.34	10.52	12.64	100.00
1975	61.34	15.62	10.16	12.88	100.00
1976	61.06	16.06	10.02	12.86	100.00
1977	61.14	16.46	9.68	12.72	100.00
1978	61.34	17.26	9.56	11.84	100.00
1979	61.68	17.84	9.40	11.08	100.00
1980	61.74	18.68	9.50	10.08	100.00
1981	62.42	18.70	9.18	9.70	100.00
1982	62.38	19.16	9.10	9.36	100.00
1983	62.38	19.26	8.70	9.66	100.00
1984	62.22	19.74	8.26	9.78	100.00
1985	62.65	19.80	7.85	9.70	100.00
1986	62.54	20.12	7.32	10.02	100.00
1987	63.54	19.62	6.70	10.14	100.00
1988	65.00	18.18	6.66	10.16	100.00
1989	66.94	16.62	6.52	9.92	100.00
1990	68.62	16.58	4.94	9.86	100.00
1991	69.80	15.96	4.66	8.58	100.00
1992	70.34	15.76	4.52	9.38	100.00
年平均 配分率(%)					
63~72	60.69	14.11	9.97	15.23	100.00
72~82	61.68	17.00	9.97	11.54	100.00
82~92	65.40	18.34	6.45	9.81	100.00
72~92	63.54	17.67	8.11	10.68	100.00
63~92	62.70	16.67	8.60	12.03	100.00

註 : 1963~72년간의 기간중 年平均 配分率は Kim and Park(1985)의 자료이며, 이 구간의 要素所得을 要素別 增加率로 延長한 후 1963~92년간의 要素別 年平均 所得配分率을 구하였음.

資料 : KDI. DB 참조.

이는 불가능하다 하겠다. 따라서 추계된 노동소득배분율의 信賴性도 결국 既存 統計資料에서는 명시되고 있지 않은 非法人企業의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者の 勞動所得 해당분이 여하히 정확하게 추계되고 있느냐 하는데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겠다.

非住宅企業部門의 非勞動所得은 農林水產業部門, 非農林水產業部門 등의 財産所得에 해당되는데, 그러한 所得은 構造物 및 裝備, 在庫資産과 土地 등 세가지 형태의 資産價値에 따라서 각각 配分되고 있다. 그러한 非勞動所得의 配分節次는 각 부문별 資産金額에 대한 所得比率이 資産形態別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資産形態別 所得配分結果를 期間別 平均基準으로 보면 構造物 및 裝備에 대한 所得配分率은 1963~72년간의 14.11%에서 1972~82년간에는 17.00%, 1982~92년간에는 18.34%로 증대되고 있으며, 반대로 在庫資産과 土地에 대한 所得配分率은 1963~72년간의 9.97%와 15.23%에서 1982~92년간에는 각각 6.45%와 9.81%로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表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景氣變動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5個年 移動平均된 要素別 所得配分率은 勞動, 두가지 형태의 資本과 土地를 통합하여 非住宅企業部門 總要素投入의 시계열을 구하는 데 있어 加重値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所得配分率을 要素投入을 집계하는 데 있어서 加重値로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前提에 입각하

고 있다. 즉 모든 要素單位數의 적은 비율의 증가가 生産을 x만큼 높인다고 하면 어떤 특정요소단위수의 같은 비율의 증가는 生産을 x곱하기 同 要素 所得分配率만큼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 要素의 限界生産物(marginal product)은 다른 요소의 투입량이 불변일 때 同 要素 1單位 추가로 인해서 附加되는 추가적 생산물을 의미하며, 각 요소의 總所得(total earnings)은 동 요소단위수와 단위당 가격 또는 소득을 곱한 것과 같다. 그런데 이러한 前提는 費用의 最小化를 기하는 企業으로서는 여러 生産要素의 單位當 限界生産物이 同 要素單位當 價格 또는 所得에 比例하도록 하는 比率로 요소를 결합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表 3>에서는 우리나라 非住宅企業部門의 要素別 所得配分率을 1960~68년간의 日本과 美國의 경우와 비교하고 있다. 同表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배분율은 日本이나 美國에 비해서 훨씬 낮은 반면에, 非住宅用土地에 대한 소득분배율이 이들 두 나라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構造物 및 裝備에 대한 소득배분율은 1963~72년간에는 美國의 수준을 상회하였고 日本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2년 이후의 기간에는 18% 수준으로 증가하여 日本과 美國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在庫資産에 대한 배분율도 日本과 美國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勞動所得配分率의 크기는 資本所得에 대

〈表 3〉 非住宅企業部門 要素別 所得配分率의 國際比較

(단위 : %)

	韓 國				日 本	美 國
	1963~72	1972~82	1982~92	1963~92	1960~68	1960~68
勞動	60.7	61.7	65.4	62.7	73.7	80.2
構造物·裝備	14.1	17.0	18.3	16.7	14.3	11.9
在庫資産	10.0	9.8	6.5	8.6	7.4	4.0
非住宅用土地	15.2	11.5	9.8	12.0	4.6	3.9
國民所得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表 2〉와 Denison and Chung(1976), p. 29.

한 勞動所得의 相對的 比重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經濟의 發展段階를 나타내는 指標라고 할 수 있다. 1982~92년간 우리나라 勞動所得配分率は 平均 65% 수준으로 아직 美國이나 日本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Denison and Chung(1976)에서 다른 先進國家의 1960년대 勞動所得配分率을 보면 대체로 72~79%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日本을 제외하면 1960~62년간의 이탈리아의 노동소득배분율이 72% 수준으로 가장 낮고, 캐나다·프랑스·노르웨이·영국 등이 78~79% 수준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IV. 非住宅企業部門의 要素投入

非住宅企業部門의 生産活動을 위한 要素投入은 勞動, 再生産可能資本(構造物 및 裝備) 및 土地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表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非住宅企業部門

總勞動投入指數는 1963~72년간 年평균 5.06% 증가에 이어 1972~82년간에는 年평균 4.55%로, 그리고 1982~92년간에는 年평균 2.95%로 勞動投入增加率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勞動投入指數는 단순한 취업자의 증가와 그 취업자의 適當 平均勞動時間의 증가와 같은 노동투입의 量的 변화뿐만 아니라 總就業時間의 性·年齡別 構成變化, 就業者의 教育水準別 構成變化, 그리고 平均勞動時間變化에 따른 能率變化와 같은 노동투입의 質的 변화요인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勞動投入指數에 따른 量的 변화를 나타내는 취업자수의 投入指數는 우리나라의 總就業者數에서 政府 및 民間非營利서비스生産者部門의 취업자수를 감하여 구한 非住宅企業部門의 취업자수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非住宅企業部門의 취업자의 平均勞動時間의 증가를 나타내는 指數는 總就業者의 適當 平均 就業時間과, 政府 및 民間非營利서비스生産者部門의 就業者는 適當 平均 44시간 취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非住

〈表 4〉 非住宅企業部門의 勞動投入指數

(1972 = 100)

	就業者數	平均就業時間	性·年齡別 構成變化	教育水準別 構成變化	平均勞動時間 變化에 따른 能率變化	勞動投入 指 數 (6) = (1×2. .×5)
	(1)	(2)	(3)	(4)	(5)	
1971	95.73	99.81	101.32	99.12	101.30	97.20
197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973	105.52	99.81	99.29	100.88	99.80	105.28
1974	110.15	101.72	100.36	101.77	100.64	115.17
1975	112.61	102.68	100.66	102.66	100.13	119.64
1976	119.69	105.94	99.42	103.14	99.23	129.02
1977	123.45	104.60	100.10	103.62	99.47	133.23
1978	128.97	105.94	100.51	104.10	99.93	142.86
1979	130.48	104.21	101.16	104.59	100.08	143.98
1980	131.19	104.41	101.52	105.09	101.42	148.21
1981	133.59	104.02	102.04	104.58	101.31	150.23
1982	137.21	107.47	101.25	104.97	99.60	156.10
1983	137.96	107.09	101.72	105.11	99.68	157.46
1984	136.63	106.70	102.50	106.44	100.21	159.39
1985	141.42	106.70	102.51	107.06	100.51	166.45
1986	146.11	104.98	102.18	107.47	101.08	170.26
1987	153.81	105.17	101.99	107.84	100.07	178.04
1988	157.93	105.94	102.87	108.51	100.35	187.41
1989	163.28	105.36	102.68	108.89	100.71	193.71
1990	167.18	104.21	103.01	109.26	101.74	199.49
1991	171.90	103.83	103.30	109.83	102.02	206.59
1992	174.37	101.92	103.68	110.71	102.39	208.87
年平均 增加率(%)						
63~72	3.49	0.77	-0.01	0.74	0.03	5.06
72~82	3.21	0.72	0.12	0.49	-0.04	4.55
82~92	2.43	-0.53	0.24	0.53	0.28	2.95
72~92	2.82	0.10	0.18	0.51	0.12	3.75
63~92	3.03	0.30	0.12	0.58	0.09	4.16

註 : 1963~72년간의 기간중 年平均 增加率은 Kim and Park(1985)의 자료이며, 1963~92년간의 年平均 增加率은 각 구간의 增加率로 延長한 것임.

資料 : KDI. DB 참조.

宅企業部門의 總就業時間과 취업자수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指數化할 수 있다. 그러나 質的 變動을 나타내는 要因들의 指數들은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추정되었다. 勞動時間의 性·年齡別 構成變化指數는 性·年齡別로 취업시간당 勞動生産性이 平均賃金水準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性·年齡別 賃金指數로 就業者構成比를 加重平均하여 구하였다. 教育水準別 就業時間의 構成變化指數도 教育水準別로 취업시간당 勞動生産性이 平均賃金水準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教育水準別 賃金指數로 教育水準別 就業者構成比를 加重平均하여 구하였다. 平均勞動時間變化에 따른 能率變化指數는 適當 平均就業時間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勞動時間의 延長에 따른 產出量增加幅이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하고, 다시 일정시간을 초과하면 勞動時間延長이 生産量增加에 전혀 寄與하지 않게 되는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 추정에서는 適當 平均就業時間이 44시간이 될 때까지는 노동시간연장에 비례하여 產出량이 증가하며, 44~70시간 사이에서는 產出量增加效果가 遞減하고, 70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노동시간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⁵⁾

〈表 5〉에서는 非住宅企業部門의 勞動投入指數와 함께 再生産可能資本과 土地投入指數 및 總要素投入指數는 물론 投入要素單位當 產出量指數를 보여주고 있다. 再生産可能資本指數는 構造物 및 裝備投入指數와 在庫指數로 구분된다. 여기의 구조물 및 장비(有形固定資産)의 투입지수는 粗資産貯量(gross capital stock)과 純資産貯量(net capital stock)의 投入指數에 각각 3대 1의 加重値를 두어 加重平均하여 추정하였다.

非住宅企業部門의 1968~77년간의 불변 가격기준 純資本貯量과 粗資本貯量은 1968년과 1977년의 國富調査의 所有資産基準의 不變價格基準 純 및 粗有形固定資産(構築物 및 裝備)과 1968~77년간의 국민계정의 非住宅企業部門의 불변가격기준 고정자본형성 및 고정자본소모를 이용하여 多項式 基準指方法(polynomial-benchmark method)에 의해서 시계열을 추정하였다. 1977년 이후 純資本貯量은 1977년 國富調査의 純有形固定資産에 연도별 고정자본형성을 합하고 고정자본소모를 감하여 貯量을 추정하였다. 또한 1977년 이후의 粗資本貯量은 1977년 國富調査의 粗有形固定資産에 연도별 고정자본형성을 합하고 여기에 廢棄資産額을 감하고 建設假計定의 有形固定資産이 제외된 시계열로 調整·推定한 후 全期間 純資

5) 適當 44~70시간을 勞動投入에 따른 產出量 遞減區間으로 가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취업자 중 適當 54시간 이상을 취업하는 취업자의 연도별 適當 平均就業時間이 별도분석에 의하면 65~70시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年平均으로 70시간 가까이 勞動하는 취업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이 시간까지 계속 勞動時間延長에 따른 產出量增加效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Kim and Park, 1985 참조).

〈表 5〉 非住宅企業部門의 國民所得, 要素投入 및 要素單位當 產出量指數

(1972=100)

	國民所得 指 數 (1)	要素別 投入指數						要素單位 當產出量 指 數 (8)=(1/7)
		勞動 (2)	構造物· 裝 備 (3)	在庫資產 (4)	總再生產 可能資本 (5)	土地 (6)	總要素 投 入 (7)	
1971	94.03	97.20	89.76	95.49	85.05	100.00	91.13	93.54
197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973	116.88	105.28	111.90	103.65	108.51	100.00	105.47	110.83
1974	128.81	115.17	125.99	111.73	120.19	100.00	114.55	112.45
1975	139.45	119.64	140.33	120.89	132.67	100.00	120.47	115.75
1976	159.33	129.02	157.46	126.98	145.75	100.00	129.65	122.89
1977	176.99	133.23	181.19	132.78	163.26	100.00	136.85	129.33
1978	196.30	142.86	210.56	138.46	184.86	100.00	149.05	131.70
1979	211.24	143.98	244.07	147.59	210.78	100.00	157.30	134.29
1980	204.20	148.21	276.91	154.43	235.62	100.00	167.98	121.56
1981	217.84	150.23	307.28	158.13	258.17	100.00	175.45	124.16
1982	232.66	156.10	336.74	163.76	281.04	100.00	186.16	124.98
1983	261.84	157.46	358.81	166.24	298.89	100.00	191.45	136.77
1984	287.14	159.39	376.56	168.58	315.21	100.00	197.21	145.60
1985	306.36	166.45	396.25	172.11	332.62	100.00	205.95	148.75
1986	349.24	170.26	420.61	174.68	355.00	100.00	213.91	163.26
1987	392.21	178.04	453.20	177.88	383.11	100.00	224.10	175.02
1988	439.21	187.41	493.22	183.62	410.21	100.00	233.87	187.80
1989	465.36	193.71	538.48	194.51	441.56	100.00	241.77	192.48
1990	514.53	199.49	583.15	206.01	496.58	100.00	253.61	202.88
1991	562.06	206.59	626.92	219.41	534.83	100.00	264.06	212.85
1992	590.07	208.87	669.67	233.07	572.36	100.00	272.37	216.64
年平均 增加率(%)								
63~72	9.07	5.06	11.17	2.91	6.21	0.00	4.07	4.80
72~82	8.81	4.55	12.91	5.06	10.89	0.00	6.41	2.25
82~92	9.75	2.95	7.12	3.59	7.37	0.00	3.88	5.65
72~92	9.28	3.75	9.97	4.32	9.11	0.00	5.14	3.94
63~92	9.21	4.16	10.34	3.88	8.20	0.00	4.81	4.21

註: 1963~72년간의 기간중 年平均 增加率은 Kim and Park(1985)의 자료이며, 1963~92년간의 年平均 增加率은 각 구간의 增加率로 延長한 것임.

資料: KDI, DB 참조.

本貯量과 粗資本貯量を 추정하였다.

在庫資産貯量은 1977년 國富調査의 在庫資産貯量에서 산출한 불변가격기준 貯量과 국민계정의 非住宅企業部門의 불변가격기준 연도별 재고증가액을 합산하여 時系列을 추정하였다. 時系列로 구한 연말기준의 粗資本貯量과 純資本貯量, 在庫資産貯量 들을 1972년 기준으로 指數化하고 前年末 貯量指數와 該當年末 貯量指數를 單純平均하여 연간의 平均指數를 산출하였다. 土地投入의 規模에는 그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總要素投入指數는 勞動, 再生産可能資本과 土地의 投入指數時系列을 각 요소별 소득배분율로 가중치를 주어 집계한 것이고, 投入要素單位當 產出量指數는 實質國民所得의 增加 중에서 要素投入增加로 설명되지 않는 殘餘分으로서 要素單位當 生産性向上을 나타내는 것이다. 投入要素單位當 產出量指數는 실제로 實質國民指數를 總要素投入指數로 나누어 구하였다.

V.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 要因別 投入

Denison의 成長要因分析에서는 要素單位當 產出量を 결정하는 여러가지 要因을 크게 ①資源配分改善, ②法律的 및 人的 環境變化, ③規模의 經濟利益, ④不規則要因,

⑤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資源配分改善效果에는 農業部門의 취업자가 近代的인 非農業部門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非農業部門의 自營業主 및 無給家族從事자가 근대적 部門의 被傭者로 이동하는 데 따른 두 部門의 生産性差異에 의한 效果를 측정하고, 또 貿易障壁緩和에 따른 資源배분개선효과도 측정된다. 法律的 및 人的 環境變化效果에는 物理的 環境保護를 위한 公害防止效果, 從業員의 就業安全과 健康을 위한 安全 및 健康保護效果, 그리고 부정과 범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環境變化效果 등으로 구분 추정된다. 規模의 經濟利益效果는 經濟규모의 확대에 따른 전반적 經濟利益과 消費構造變化에 따른 經濟利益 등으로 나누어 生産성증가효과를 추정한다. 不規則要因에는 농업생산에 대한 氣候影響效果, 勞動爭議에 의한 근로시간감소에 따른 生産減少效果, 景氣變動으로 인한 有效需要變動效果 등이 측정된다. 이상의 여러가지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직접 추정되며, 有效需要變動效果와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은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指數를 개별적으로 추정한 요인들의 指數로 나누어 얻어지는 殘餘指數의 變動要素와 趨勢要素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成長要因을 추정·분석한 既存의 研究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公害防止 등 環境變化效果와 勞動爭議로 인한 生産減少效果 등은 投入要素當 產出量增加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要因으로 이 項目效

果는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추가적 要因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 중에서 法律的 및 人的 環境變化效果는 이를 數量化할 수 있는 推定資料의 未備로 측정하지 못하였으나 勞動爭議에 의한 근로시간 감소의 生産減少效果는 勞使紛糾에 따른 勤勞損失日數나 生産額蹉跌額 등의 자료수집이 가능하였다. 특히 1987년 이후 勞使紛糾의 증가로 勤勞損失日數나 生産額蹉跌額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要因에 영향을 주는 要因으로 추가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要因別 指數는 <表 6>에 요약되어 있는데, 同表에 제시된 각 要因의 개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설명을 하기로 한다. 農業 勞動의 상대적 감소에 따른 生産性增加效果는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의 생산성차이로 인하여, 농업노동의 상대적 감소 또는 비농업노동의 상대적 증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全體投入勞動의 單位當 生産性を 향상시킨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自營業主의 상대적 감소에 따른 효과도 유사한 論理로서 설명할 수 있다. 즉 非農業部門의 自營業主와 無給家族從事者는 대부분의 경우 生産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中小商工業(個人서비스業 포함)에 從事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농업부문 노동투입 중 이러한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비중의 감소는 投入勞動 單位當 生産性を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經濟規模增大에 따른 規模의 經

濟利益은 그 추정방법은 간단하지 않으나 그 개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經濟規模增大에 따른 規模의 經濟利益이 없었을 경우의 동일한 要素投入으로 얻을 수 있는 生産增加와 대비한 生産增加效果를 나타낸다. 消費構造變化에 따른 利益은 所得彈力性이 크고 生産過程上 規模經濟의 효과가 큰 소비품목이 전체소비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실현되는 추가적 規模의 經濟이익효과이다.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爭議行爲에 의해서 참가인원과 勞動損失日數가 증가하게 되면 企業의 生産活動이 저해되어 生産減少額(차질액) 등이 발생하게 된다. 勞動爭議로 인한 勤勞時間減少效果는 노동쟁의 결과 生産減少에 따른 實質所得減少效果를 측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은 要素單位當 產出量 중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生産性增加要因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는 殘餘分을 나타낸다. Denison은 이 殘餘分을 「知識의 向上 및 기타」(advances in knowledge and n.e.c)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表 6>에서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要因別 指數는 모두 동 지수의 1% 변화가 非住宅企業部門 國民所得의 같은 1%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단위로 계측되었음을 부언한다.

〈表 6〉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要因別 指數

(1972 = 100)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 (1)	資源의 再配分		規模의 經濟利益		農業生 產에 대 한 氣候 影響 (6)	勞動爭議 로 인한 勤勞時間 減少效果 (7)	綜合的 效果 (2×3.. ...7) (8)	(1/8) (9)	技術進 步 및 기 타要因 (10)	需 要 變 動 (9/10) (11)
		農業勞 動減少 (2)	自營業 主減少 (3)	經濟規 模擴大 (4)	消費構 造變化 (5)						
1971	97.66	101.34	99.58	99.18	100.35	101.27	100.00	101.71	96.02	99.33	96.67
197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973	110.83	100.42	99.85	101.94	100.92	99.99	100.00	103.14	107.46	100.67	106.74
1974	112.45	100.42	100.34	102.96	102.87	100.58	100.00	107.34	104.76	101.34	103.37
1975	115.75	101.71	100.84	103.94	103.40	99.34	100.00	109.50	105.71	102.02	103.62
1976	122.89	101.73	101.20	105.69	103.96	102.02	100.00	115.40	106.49	102.70	103.69
1977	129.33	102.57	102.05	107.11	104.12	101.15	100.00	118.08	109.53	103.39	105.94
1978	131.70	103.74	102.18	108.41	105.14	98.74	100.00	119.30	110.39	104.08	106.06
1979	134.29	104.66	102.25	109.07	106.35	100.51	100.00	124.77	107.63	104.78	102.72
1980	121.56	106.98	101.72	110.01	106.29	95.46	100.00	121.47	100.07	105.86	94.53
1981	124.16	107.19	101.82	110.66	107.03	98.21	100.00	126.95	97.80	106.95	91.44
1982	124.98	107.29	101.35	111.26	108.16	99.32	100.00	129.96	96.17	108.05	89.01
1983	136.77	109.66	101.44	111.91	108.98	100.25	100.00	136.01	100.56	109.16	92.12
1984	145.60	110.82	102.80	113.17	109.47	99.73	100.00	140.75	103.45	110.28	93.81
1985	148.75	111.77	102.86	114.06	109.77	100.31	100.00	144.39	103.02	111.42	92.46
1986	163.26	112.26	102.65	115.90	110.67	100.33	100.00	148.30	110.09	112.57	97.80
1987	175.02	112.62	103.15	117.49	111.84	99.00	99.85	150.89	115.99	113.73	101.99
1988	187.80	113.01	103.34	119.04	113.10	100.43	99.88	157.72	119.07	114.90	103.63
1989	192.48	113.35	104.45	119.65	115.07	100.04	99.87	162.86	118.19	116.08	101.82
1990	202.88	114.28	104.65	120.95	116.90	99.77	99.91	168.55	120.37	117.28	102.63
1991	212.85	115.13	104.38	122.07	118.74	99.68	99.93	173.51	122.67	118.49	103.53
1992	216.64	115.30	103.71	122.70	119.61	100.32	99.91	175.90	123.16	119.71	102.88
年平均 增加率(%)											
63~72	4.80	0.62	0.12	1.02	0.76	0.04	0.00	2.59	2.16	2.21	-0.05
72~82	2.25	0.71	0.13	1.07	0.79	-0.07	0.00	2.66	-0.39	0.78	-1.16
82~92	5.65	0.72	0.23	0.98	1.01	0.10	-0.01	3.07	2.50	1.03	1.46
72~92	3.94	0.71	0.18	1.03	0.90	0.02	-0.00	2.86	1.05	0.90	0.14
63~92	4.21	0.69	0.16	1.03	0.86	0.02	0.00	2.78	1.39	1.31	0.08

註: 1963~72년간의 기간중 年平均 增加率은 Kim and Park(1985)의 자료이며, 1963~92년간의 年平均 增加率은 각 구간의 增加率로 延長한 것임.

資料: KDI, DB 참조.

VI. 全體國民所得成長의 要因別 成長寄與度

우리나라의 實質國民所得 成長要因의 추정결과는 <表 7-1>과 <表 7-2>에 제시되어 있다. 이 表에서는 우리나라의 非住宅企業部門 國民所得과 全體國民所得의 成長要因의 추정결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實質國民所得 成長率은 기간별 연평균 기준으로 추정되어 있으며, 각 要因別 國民所得 成長寄與度は 「퍼센티지 포인트」 單位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각 要因別 成長寄與度は 다른 要因들이 모두 과거 실적대로 변화하고 特定要因만이 변화가 없었더라면 所得 成長率이 얼마만큼 낮아졌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測定되어 있다. 全體國民所得의 각 요인별 所得成長寄與度は 2段階로 나누어 추정되었다.

첫째단계는 部門別 所得成長寄與度로서 <表 1>에 의해서 政府·民間非營利團體 및 海外非投資所得部門, 住宅所有部門, 海外投資所得部門, 非住宅企業部門의 成長寄與度を 추정한다.

둘째단계는 非住宅企業部門의 각 要因別 所得成長寄與度を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全體經濟의 국민소득 成長要因別 寄與度を 추정하게 된다. 즉 첫째단계에서 구한 非住宅企業部門 所得成長寄與度を 둘째단계의 非住宅企業部門 實質國民所得成長率의 크기에 비례해서 요인별로 분할함으로써 全體

經濟의 所得成長要因別 寄與도가 추정된다. 첫째단계의 部門別 所得成長寄與度の 추정 방법은 비교적 쉽게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추정되는 非住宅企業部門의 要因別 成長寄與度 推定方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非住宅企業部門의 國民所得成長率을 總要素投入과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의 연평균증가율에 비례하도록 總要素投入 寄與도와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寄與도로 분할한다.

둘째, 非住宅企業部門의 總要素投入寄與度を 勞動, 非住宅 構造物 및 裝備, 在庫資産과 土地 등의 투입요소별로 각각의 投入增加率과 所得配分率을 곱하여 구한 寄與도에 비례하도록 분할한다.

셋째,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에 대한 成長寄與度を 生産性增加 要因別 諸指數의 增加率에 비례하도록 여러가지 要因의 寄與도로 분할한다.

끝으로, 總勞動投入에 의한 成長寄與도도 勞動投入要因別 投入增加率에 비례하도록 要因별로 분할한다.

이와 같이 추정된 要因別 成長寄與度の 결과를 보면 非住宅企業部門의 경우 1963~92년간의 國民所得은 연평균 9.2%씩 성장했는데, 그중 53.3%에 해당하는 4.9%포인트는 總要素投入增加에 기인하고 나머지 4.3%포인트(46.7%)는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의 寄與도임을 나타내고 있다. 동 기간 중 總要素投入增加에 의한 成長寄與度 중

〈表 7-1〉 非住宅企業部門의 實質國民所得成長에 대한 要因別 成長寄與度

(단위 : %포인트)

	1963~72 ¹⁾	1972~82	1982~92	1972~92	1963~92 ²⁾
實質國民所得 成長率	9.07	8.81	9.75	9.28	9.21
總 要 素 投 入	4.16	6.52	3.97	5.25	4.91
(勞 動)	2.59	3.33	2.21	2.78	2.74
就業者數	1.80	2.38	1.82	2.11	2.01
平均勞動時間	0.40	0.53	-0.04	0.07	0.20
性·年齡別 構成變化	-0.01	0.09	0.18	0.13	0.08
教育水準別 構成變化	0.38	0.36	0.40	0.38	0.39
平均勞動時間變化에 따른 能率變化	0.02	-0.03	0.21	0.09	0.06
政府 및 民間非營利團體의 就業者數
(資 本)	1.57	3.19	1.76	2.47	2.17
構造物 및 裝備	1.33	2.60	1.50	2.06	1.81
在庫資產	0.24	0.59	0.26	0.41	0.36
海外投資
住宅
(土 地)	0.00	0.00	0.00	0.00	0.00
要素單位當 產出量	4.91	2.29	5.78	4.03	4.30
(資源配分 改善)	0.77	0.85	0.99	0.92	0.88
農業勞動의 相對的 減少	0.65	0.72	0.75	0.74	0.71
自營業主의 相對的 減少	0.12	0.13	0.24	0.18	0.17
(規模經濟의 利益)	1.85	1.89	2.08	2.00	1.96
經濟規模 擴大	1.06	1.09	1.03	1.07	1.07
消費構造 擴大	0.79	0.80	1.05	0.93	0.89
(不規則要因)	-0.01	-1.25	1.62	0.17	0.10
農業生産에 대한 氣候의 影響	0.04	-0.07	0.10	0.02	0.02
勞動爭議로 인한 勤勞時間減少	0.00	0.00	-0.01	-0.00	0.00
需要變動	-0.05	-1.18	1.53	0.15	0.08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	2.30	0.80	1.09	0.94	1.36

註 : 1) 1963~72년간의 각 要因의 寄與도는 Kim and Park(1985)의 推定值임.

2) Kim and Park(1985)의 1963~72년간의 수치를 이용하여 延長한 것임.

資料 : 〈表 2〉, 〈表 4〉, 〈表 5〉, 〈表 6〉과 KDI. DB 참조.

〈表 7-2〉 全體經濟의 實質國民所得成長에 대한 要因別 成長寄與度

(단위 : %포인트)

	1963~72 ¹⁾	1972~82	1982~92	1972~92	1963~92 ²⁾
實質國民所得 成長率	8.22	7.09	9.47	8.29	8.26
總 要 素 投 入	4.19	5.26	4.46	4.90	4.65
(勞 動)	3.05	3.24	2.53	2.90	2.94
就業者數	2.36	2.47	2.17	2.31	2.29
平均勞動時間	0.32	0.42	-0.35	0.06	0.17
性·年齡別 構成變化	-0.01	0.07	0.16	0.11	0.07
教育水準別 構成變化	0.31	0.29	0.35	0.32	0.33
平均勞動時間變化에 따른 能率變化	0.01	-0.02	0.18	0.08	0.05
政府 및 民間非營利團體의 就業者數	0.06	0.01	0.02	0.02	0.03
(資 本)	1.14	2.02	1.93	2.00	1.71
構造物 및 裝備	1.09	2.08	1.31	1.73	1.52
在庫資產	0.20	0.47	0.23	0.34	0.31
海外投資	-0.25	-0.68	0.21	-0.23	-0.27
住宅	0.10	0.15	0.18	0.16	0.15
(土 地)	0.00	0.00	0.00	0.00	0.00
要素單位當 產出量	4.03	1.83	5.03	3.39	3.61
(資源配分 改善)	0.63	0.68	0.86	0.77	0.74
農業勞動의 相對的 減少	0.53	0.58	0.65	0.62	0.60
自營業主의 相對的 減少	0.10	0.10	0.21	0.15	0.14
(規模經濟의 利益)	1.52	1.51	1.81	1.68	1.65
經濟規模 擴大	0.87	0.87	0.90	0.90	0.90
消費構造 擴大	0.65	0.64	0.91	0.78	0.75
(不規則要因)	-0.01	-1.00	1.41	0.15	0.08
農業生産에 대한 氣候의 影響	0.03	-0.06	0.09	0.02	0.02
勞動爭議로 인한 勤勞時間減少	0.00	0.00	-0.01	-0.00	0.00
需要變動	-0.04	-0.94	1.33	0.13	0.06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	1.89	0.64	0.95	0.79	1.14

註 : 1) 1963~72년간의 각 要因의 寄與도는 Kim and Park(1985)의 推定值임.

2) Kim and Park(1985)의 1963~72년간의 수치를 이용하여 延長한 것임.

資料 : 〈表 1〉과 〈表 7-1〉 및 KDI, DB 참조.

勞働投入의 寄與度는 약 2.7%포인트(55.1%)로서 資本投入增加에 의한 기여도 2.2%포인트(44.9%)를 상회하고 있다. 勞働投入寄與度 중에서는 대체로 就業者數增加要因의 기여도가 다른 勞働投入要因의 기여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2.0%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963~92년간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要因 중에서는 規模經濟利益의 기여도가 2.0%포인트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의 기여도 1.4%포인트, 資源配分改善의 기여도 0.9%포인트 순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1963~92년간의 非住宅企業部門의 成長要因 추정결과를 初期(1963~72), 中期(1972~82)와 後期(1982~92)로 구분하여 보면, 1963~72년간에는 總요소투입증가에 의한 기여도는 4.2%포인트이며, 요소단위당 산출량투입증가에 의한 기여도는 4.9%포인트로서, 비주택기업부문 국민소득 성장률의 46.2%는 前者에 의해서 53.8%는 後者에 의해서 설명되므로, 요소단위당 생산성향상에 의한 성장기여율이 생산요소투입보다 약간 높은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1972~82년간에는 總要素投入增加에 의한 寄與도가 6.5%포인트이며, 요소단위당 산출량증가에 의한 寄與도는 2.3%포인트로서 非住宅企業部門 國民所得成長率의 73.9%는 前者에 의해서 26.1%는 後者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한편 1982~92년간에는 總要素投入增加에 의한 기여도가 4.0%포인트로서 非住宅企業部門 國民所得

成長率의 40.8%를 설명하며, 요소단위당 산출량증가에 의한 寄與도는 5.8%포인트로 59.2%를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期間別로 要素投入增加에 의한 寄與도와 요소단위당 산출량증가에 의한 寄與도간에 큰 변화를 보였는데, 그러한 이유는 中期에는 勞働投入과 資本投入이 가속화된 반면에 1980년의 農作物生産減少와 景氣不況(1979~80)으로 인한 不規則要因이 負의 寄與도를 보인 것과, 後期에 와서 技術進步 등 生産性增加 要因들의 寄與도가 前期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술진보 및 기타 요인의 성장기여도는 初期의 2.3%포인트에서 中期에는 0.8%포인트로 크게 저하되었다가 後期에는 다시 1.1%포인트로 그 前期보다는 약간 높아졌다. 이는 대체로 70년대의 政府主導 아래 重化學工業建設과 관련된 投資資源의 非效率的 배분과 80년대 초의 全世界的 不況으로 인한 자본시설의 낮은 稼動率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980년대초 이후에는 自律化 및 開放化 推進에 따라 產業生産性이 다시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1963~92년간의 全體經濟에 대한 國民所得成長要因의 成長寄與도를 <表 7-2>에서 보면 국민소득은 연평균 8.3% 성장했는데, 總要素投入增加가 4.7%포인트의 성장기여도를 보였으며 이는 전체국민소득성장률의 56.6%를 설명하는 것이고, 要素單位當 生産性增加에 의한 기여도는 3.6%포인트로서 같은 소득성장률의 43.4%를 설명하는 것이

다. 앞에서 살펴본 같은 기간의 非住宅企業部門의 要素投入과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 要因의 國民소득성장기여도보다 낮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전체국민소득부문에 非住宅企業部門에 포함되지 않는 3개의 小部門, 즉 政府·民間非營利서비스生産者 및 해외부문, 주택소유부문과 해외투자소득부문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所得成長率이 非住宅企業部門의 所得成長率보다 낮았다는 사실에 기인된다. 그러나 전체국민소득의 주요한 성장요인의 상대적 寄與度는 대체로 非住宅企業部門의 경우와 비슷하다.

Ⅶ. 就業者 1人當 國民所得 成長의 要因別 成長寄與度

지금까지는 非住宅企業部門과 全體經濟의 總量的 國民소득의 成長要因에 관해서 논의했는데, 이제부터는 就業者 1人當 國民所得 成長要因의 추정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表 8-1>과 <表 8-2>에서는 就業者 1人當 國民所得成長의 요인별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就業者 1人當 國民所得成長 要因의 추정방법은 대체로 總量的 國民所得 成長要因의 추정방법과 같다. 즉 취업자 1인당 國民소득의 非住宅企業部門의 成長寄與度を 측정 한 후 全體經濟의 就業者 1人當 成長要因別 寄與度を 추정한다. 다만 취업

자 1인당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은 모든 요소투입항목을 취업자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성장기여율을 계산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總量的 成長要因 추정결과에 나타나고 있는 就業者數增加에 의한 寄與度는 취업자 1인당 성장요인 추정결과에는 배제되게 되며, 資本投入增加의 寄與度도 취업자 1인당 자본스톡증가율 기준으로 환산되므로 자연히 總量的 成長要因別 寄與度의 경우보다 낮아지게 된다.

土地投入의 경우에도 총량적 성장요인별 기여율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취업자 1인당기준으로는 土地投入의 減少를 나타내기 때문에 負의 成長寄與度を 나타내게 된다. 그 외에 勞動時間增加 및 기타 勞動特性變化에 관한 증가율이나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를 가져오는 여러 요인의 증가율은 처음부터 취업자 1인당 평균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취업자 1인당 成長寄與度推計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表 8-2>에서 보면 就業者 1人當 全體國民所得은 1963~92년간에는 연평균 4.9%, 그리고 1972~92년간에도 연평균 5.1%씩 成長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에서 總量的 國民所得成長率은 같은 기간에 8.3%로 별차 없는 것과 비교할 때 0.2%포인트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72~92년간을 1972~82년간과 1982~92년간으로 구분하여 就業者 1人當 要素投入 成長寄與度を 總量的 國民所得成長寄與도와 비교할 때 두 기간중에 要素投入成長寄與度の 변화가 상

〈表 8-1〉 非住宅企業部門의 就業者 1人當 實質國民所得成長에 대한
要因別 成長寄與度

(단위 : %포인트)

	1963~72 ¹⁾	1972~82	1982~92	1972~92	1963~92 ²⁾
實質國民所得 成長率	5.39	5.42	7.15	6.28	6.01
總 要素 投入	0.56	3.14	1.44	2.29	1.75
(勞 動)	0.79	1.14	0.48	0.81	0.76
平均勞動時間	0.40	0.64	-0.49	0.09	0.21
性·年齡別 構成變化	-0.01	0.11	0.22	0.16	0.08
教育水準別 構成變化	0.38	0.43	0.49	0.45	0.40
平均勞動時間變化에 따른 能率變化	0.02	-0.04	0.26	0.11	0.07
政府 및 民間非營利團體의 就業者數
(資 本)	0.39	2.51	1.29	1.89	1.38
構造物 및 裝備	0.47	2.26	1.18	1.72	1.30
在庫資產	-0.08	0.25	0.11	0.17	0.08
海外投資
住宅
(土 地)	-0.62	-0.51	-0.33	-0.41	-0.39
要素單位當 產出量	4.83	2.28	5.71	3.99	4.26
(資源配分 改善)	0.76	0.85	0.98	0.92	0.87
農業勞動의 相對的 減少	0.64	0.72	0.74	0.73	0.71
自營業主의 相對的 減少	0.12	0.13	0.24	0.19	0.16
(規模經濟의 利益)	1.82	1.88	2.06	1.98	1.94
經濟規模 擴大	1.04	1.08	1.01	1.06	1.06
消費構造 擴大	0.78	0.80	1.05	0.92	0.88
(不規則要因)	-0.01	-1.25	1.60	0.16	0.10
農業生產에 대한 氣候의 影響	0.04	-0.07	0.10	0.02	0.02
勞動爭議로 인한 勤勞時間減少	0.00	0.00	-0.01	-0.00	0.00
需要變動	-0.05	-1.18	1.51	0.14	0.08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	2.26	0.80	1.07	0.93	1.35

註 : 1) 1963~72년간은 Kim and Park(1985)의 1975년 不變價格基準 成長率임.

2) Kim and Park(1985)의 1963~72년간의 수치를 이용하여 延長한 것임.

資料 : 〈表 2〉, 〈表 4〉, 〈表 5〉, 〈表 6〉과 KDI, DB 참조.

〈表 8-2〉 全體經濟의 就業者 1人當 實質國民所得成長에 대한
要因別 成長寄與度

(단위 : %포인트)

	1963~72 ¹⁾	1972~82	1982~92	1972~92	1963~92 ²⁾
實質國民所得 成長率	4.59	3.66	6.53	5.08	4.92
總 要 素 投 入	0.56	1.89	1.64	1.82	1.34
(勞 動)	0.69	0.89	0.43	0.68	0.67
平均勞動時間	0.32	0.50	-0.42	0.07	0.18
性·年齡別 構成變化	-0.01	0.09	0.19	0.13	0.07
教育水準別 構成變化	0.31	0.33	0.42	0.37	0.34
平均勞動時間變化에 따른 能率變化	0.01	-0.04	0.22	0.09	0.05
政府 및 民間非營利團體의 就業者數	0.06	0.01	0.02	0.02	0.03
(資 本)	0.32	1.40	1.49	1.47	1.00
構造物 및 裝備	0.59	1.75	1.01	1.41	1.09
在庫資產	-0.02	0.20	0.10	0.14	0.07
海外投資	-0.24	-0.54	0.29	-0.13	-0.19
住宅	-0.01	-0.01	0.09	0.05	0.03
(土 地)	-0.45	-0.40	-0.28	-0.33	-0.33
要素單位當 產出量	4.03	1.77	4.89	3.26	3.58
(資源配分 改善)	0.63	0.66	0.84	0.75	0.73
農業勞動의 相對的 減少	0.53	0.56	0.64	0.60	0.60
自營業主의 相對的 減少	0.10	0.10	0.20	0.15	0.13
(規模經濟의 利益)	1.52	1.46	1.77	1.62	1.63
經濟規模 擴大	0.87	0.84	0.87	0.87	0.89
消費構造 擴大	0.65	0.62	0.90	0.75	0.74
(不規則要因)	-0.01	-0.97	1.36	0.13	0.09
農業生産에 대한 氣候의 影響	0.03	-0.05	0.09	0.02	0.02
勞動爭議로 인한 勤勞時間減少	0.00	0.00	-0.01	-0.00	0.00
需要變動	-0.04	-0.92	1.28	0.11	0.07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	1.89	0.62	0.92	0.76	1.13

註 : 1) 1963~72년간의 각 要因의 寄與度는 Kim and Park(1985)의 推定值임.

2) Kim and Park(1985)의 1963~72년간의 수치를 이용하여 延長한 것임.

資料 : 〈表 1〉과 〈表 8-1〉 및 KDI, DB 참조.

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총량적 국민소득성장에 대한 勞動과 資本의 寄與度는 後期(1982~92)가 前期(1972~82)보다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취업자 1인당 성장기여도에서는 勞動의 성장기여도는 같은 변화구조를 보였으나 資本投入의 성장기여도는 後期가 1.5%로서 前期 1.4%보다 높은 성장기여도를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주로 海外投資部門의 성장기여도가 다른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後期에 높은 기여를 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前期의 취업자 1인당 全體國民所得成長의 要因別 寄與度 추정결과에 의하면 規模經濟의 利益效果가 1.5%포인트의 높은 성장기여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1.4%포인트의 資本投資의 성장기여도였다. 後期(1982~92)에는 前期에 가장 높은 성장기여도를 보였던 規模經濟의 利益效果가 여전히 높은 1.8%포인트로 자본투입기여도 1.5%포인트보다 월등히 높은 기여를 함으로써 취업자 1인당 전체성장률의 약 27% 수준을 설명하는 寄與率을 기록하였다.

前期에 資源配分改善의 寄與도와 비슷한 寄與를 보였던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은 前期에 0.6%포인트에서 後期에는 1.0%포인트로서 資本投入, 規模經濟의 利益效果 다음으로 높은 성장기여도를 보였다. 그 다음이 資源配分改善效果로 전후기 0.7~0.8%포인트 수준이고 勞動部門의 합계 성장기여도는 0.9%포인트에서 취업자의 平均勞動時間減少要因에 의해서 0.4%포인트로 낮아졌

다. 그러나 이 두 기간을 통합한 全期間(1972~92)의 취업자 1인당 소득성장요인별 기여율은 대체로 勞動投入과 資本投入에 의한 要素投入成長寄與率이 36%인 데 비해서 생산성변화요인들이 64%였다. 전체경제 소득성장률의 59%가 要素投入增加에 의해서 설명되고 41%가 生産性變化要因들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成長이 雇傭投入增加에 의해서 설명되는 바가 컸음을 나타내고 있다.

VIII. 成長要因의 國際比較

1985년 不變要素費用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實質國民所得은 1963~92년간 年平均 8.26%의 成長率을 보였으며, 不規則要因을 제외한 國民所得의 標準成長率은 8.18%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成長率을 가능하게 한 要因은 무엇이며 이러한 要因들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 本稿의 주요목적은 이에 대한 解答을 구하는 일이며, 이 目的을 위하여 Denison의 접근방법을 따라 1963~92년간의 우리나라 經濟成長要因을 推定한 결과를 다른 나라의 成長要因의 成長寄與도와 寄與率을 비교·분석하였다.

〈表 9-1〉은 우리나라와 日本, 그리고 美國의 國民所得의 標準成長率을 설명하는 要因들을 7個項으로 묶고 成長寄與度の 크기

〈表 9-1〉 國民所得 成長要因別 寄與率의 國際比較

(단위 : % 포인트)

	實質國民所得成長에 대한 寄與度						標準國民所得成長에 대한 寄與率(%)					
	韓 國				日本	美國	韓 國				日本	美國
	1963 ~72	1972 ~82	1982 ~92	1963 ~92	1953 ~71	1948 ~73	1963 ~72	1972 ~82	1982 ~92	1963 ~92	1953 ~71	1948 ~73
實質國民所得 成長率	8.22	7.09	9.49	8.26	8.77	3.70						
不規則要因(-)	-0.01	-1.00	1.41	0.08	-0.04	-0.12						
標準國民所得 成長率	8.23	8.09	8.08	8.18	8.81	3.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勞動投入(教育제외)	2.74	2.95	2.18	2.61	1.51	1.00	33.3	36.4	27.0	31.9	17.1	26.2
(2) 總資本投入	1.14	2.02	1.93	1.71	2.10	0.77	13.8	25.0	23.9	20.9	23.8	20.1
(3) 規模經濟利益效果	1.52	1.51	1.81	1.65	1.94	0.32	18.5	18.7	22.4	20.2	22.0	8.4
(4) 技術進步·기타要因	1.89	0.64	0.95	1.14	1.97	1.04	23.0	7.9	11.8	13.9	22.4	27.2
(5) 資源配分改善效果	0.63	0.68	0.86	0.74	0.94	0.29	7.6	8.4	10.6	9.1	10.7	7.6
(6) 教育水準向上效果	0.31	0.29	0.35	0.33	0.34	0.40	3.8	3.6	4.3	4.0	3.9	10.5
(7) 貿易障壁緩和效果	0.00	0.00	0.00	0.00	0.01	0.01	0.00	0.0	0.0	0.0	0.1	0.0

資料 : <表 7-2>와 Denison(1985) 및 Denison and Chung(1976) 참조.

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⁶⁾ 우리나라의 경우 1963~92년간의 成長寄與度가 가

장 높은 要因은 교육을 제외한 모든 勞動投入要素들의 합이다. 教育을 제외한 勞動投入의 增加는 2.6%포인트 이상의 寄與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소득 標準成長率의 31.9%를 설명하고 있다. 두번째로 成長寄與度가 높은 要因은 資本投入의 增加로서 1.7%포인트, 즉 표준성장률의 20.9%를 설명해 주고 있다. 세번째는 國民經濟의 급속한 성장과 관련된 規模의 經濟利益으로서 이 要因은 1.6%포인트로 標準成長率의 20.2%만큼을 기여했다.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은 標準成長의 1.1%포인트로 13.9%의

6) Denison(1985)은 美國의 經濟成長要因分析 (*Trends in American Economic Growth, 1929-1982*)에서 1973~82년간을 延長推定하였는데, 이 기간중 美國經濟에 있어 資源配分改善效果와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의 成長寄與度는 負의 效果로 추정되고 있다. 本稿에서 美國의 1973~82년간의 성장요인을 비교하지 않은 것은, 就業者 1人當 標準國民所得成長의 요인을 보면 資本投入, 規模利益과 教育水準向上效果를 제외한 모든 요인의 成長寄與度가 기간중 負의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통계수치상의 직접비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다.

기여율을 나타냄으로써 네번째의 요인이 되었다. 農業勞動과 非農業部門의 自營業主(無給家族從事者 포함)의 상대적 감소에 따른 資源配分改善效果는 0.7%포인트, 즉 9.1%의 成長寄與率을 나타내어 다섯번째를 차지하였다. 끝으로, 취업자의 教育水準向上效果는 0.3%포인트로 표준성장률의 4.0%를 설명하고 있다.

1963~92년간을 初期(1963~72), 中期(1972~82) 및 後期(1982~92)로 구분하여 主要要因別 寄與度를 비교하여 보아도 教育을 제외한 勞動投入要因이 初期에 2.7%포인트, 中期에 3.0%포인트, 後期에 2.2%포인트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표준성장률에 대한 상대적 寄與率이 初期 33.3%, 中期 36.4%에서 後期에는 27.0%로 감소는 하나 全期間에 걸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成長이 대체로 雇傭 및 平均勞動時間의 增加에 기인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資本增加에 의한 寄與度는 初期의 1.1%포인트에서 中期에 2.0%포인트로 높아졌으나 後期에 1.9%포인트로 0.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국민소득 표준성장률에 대한 資本投入의 상대적 寄與率도 初期의 13.8%, 中期에는 25.0%로 증가한 후 後期는 23.9%로 다시 감소했다. 이에 비해서 規模經濟利益效果, 財源配分改善效果와 就業者의 教育水準向上效果 등은 모두 기여도가 증가되고 있다. 한편 기술진보 및 기타 요인의 기여도는 初期에 1.9%포인트로 국민소득 표준성장률의 23.

0%를 설명함으로써 美國과 日本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기여도를 나타냈으나 中期에는 7.9%, 後期에는 11.8% 수준으로 美日 수준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다.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1963~92년간에 걸친 國民所得 標準成長率의 53%가 教育을 제외한 勞動 및 資本 등 要素投入의 증가에 기인했다. 初期에 47%에서 中期에 61%로, 後期에 52%로 要素投入의 成長寄與率의 상대적 수준은 다른 國家들의 推定値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편이다. 戰後 급속한 국민소득 성장을 달성한 1953~71년간의 日本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요소투입의 성장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이 <表 9-1>에서와 같이 12%포인트 정도가 높았으며, 1948~73년간의 美國의 경우보다는 7%포인트가 높았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성장에 대한 다른 요소들의 상대적 기여도가 日本·美國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낮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要素投入(교육 제외) 이외의 요인 중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은 그 상대적 寄與率이 日本(1953~71)과 美國(1948~73)의 수치보다 크게 뒤지는 것은 아니다.

<表 9-2>에서 日本과 美國의 就業者 1人當 國民所得의 요인별 표준성장기여율과 우리나라 就業者 1人當 국민소득의 표준성장 기여율에 대한 각 요인별 기여율을 비교하고 있다. 1963~92년간의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국민소득의 표준성장률은 4.8%로서

〈表 9-2〉 就業者 1人當 國民所得成長要因別 寄與率의 國際比較

(단위 : %포인트)

	實質國民所得成長에 대한 寄與度						標準國民所得成長에 대한 寄與率(%)					
	韓 國			日本	美國	韓 國			日本	美國		
	1963 ~72	1972 ~82	1982 ~92	1963 ~92	1953 ~71	1948 ~73	1963 ~72	1972 ~82	1982 ~92	1963 ~92	1953 ~71	1948 ~73
實質國民所得 成長率	4.59	3.66	6.53	4.92	8.45	2.16						
不規則要因(-)	-0.01	-0.97	1.36	0.09	-0.05	-0.12						
標準國民所得 成長率	4.60	4.63	5.17	4.83	8.50	2.2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規模經濟利益效果	1.52	1.46	1.77	1.63	2.35	0.32	33.0	31.5	34.2	33.8	27.7	14.0
(2) 技術進步·기타要因	1.89	0.62	0.92	1.13	2.37	1.04	41.1	13.4	17.8	23.4	27.9	45.6
(3) 總資本投入	0.32	1.40	1.49	1.00	1.85	0.50	7.0	30.2	28.8	20.7	21.8	21.9
(4) 資源配分改善效果	0.63	0.66	0.84	0.73	1.14	0.29	13.7	14.3	16.3	15.1	13.4	12.7
(5) 教育水準向上效果	0.31	0.33	0.42	0.34	0.41	0.40	6.7	7.1	8.1	7.0	4.8	17.6
(6) 勞動投入(教育제외)	0.38	0.56	0.01	0.33	0.44	-0.22	8.3	12.1	0.2	6.8	5.2	-9.6
(7) 土地投入	-0.45	-0.40	-0.28	-0.33	-0.07	-0.05	-9.8	-8.6	-5.4	-6.8	-0.8	-2.2
(8) 貿易障壁緩和效果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	0.0	0.0	0.1	0.0

資料 : 〈表 8-2〉와 Denison(1985) 및 Denison and Chung(1976) 참조.

日本の 1953~71년간의 8.5%보다 훨씬 낮았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이 기간 동안 전체국민소득의 표준성장률은 각각 8.2%와 8.8%로서 0.6%포인트 差異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취업자 1인당 국민소득의 표준성장률의 差異는 就業者增加에 의한 기여도가 日本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美國과의 비교는 전체국민소득 표준성장률과 취업자 1인당

국민소득의 표준성장률은 우리나라가 美國보다 높은 편에 속하였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국민소득의 주요要因別 成長寄與度와 期間別 상대적 표준성장기여율을 日本 및 美國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1963~92년간 우리나라의 規模의 經濟利益의 성장기여율이 33.8%로 日本 27.7%, 그리고 美國의 14.0%에 비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체국민소득에

대한 성장기여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이 우리나라에서는 先進國에서보다 훨씬 낮은 기여를 하였다. 1972~92년간 우리나라에서의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의 상대적 성장기여율은 13.4~17.8%였음에 비해 日本(1953~71)과 美國(1948~73)의 경우에는 각각 27.9%와 45.6%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資本投入 증가는 日本과 美國의 성장기여율과 비슷한 수준의 기여를 하였다. 넷째, 資源再配分の 改善效果도 日本·美國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한 성장기여율을 나타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教育增大의 상대적 성장기여도는 7%로서 日本에서의 기여율에 비해서는 크지만 美國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낮았다. 여섯째, 就業時間의 증가와 教育을 제외한 勞動의 特性變化效果인 노동투입의 상대적 성장기여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두 국가에서보다 높았다. 그러나 1982~92년간은 기간중 평균취업시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취업자증가요인과 教育증대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勞動投入要素의 성장기여율은 日本보다 낮았으나 美國보다는 높았다. 마지막으로, 土地의 상대적 기여도는 -6.8%로서 두 국가보다 상당

히 낮았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雇傭增大가 더욱 급속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IX. 結 論

우리나라와 日本 및 美國의 標準國民所得 成長要因의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全體國民所得과 就業者 1人當 國民所得의 成長이 日本이나 美國에 비해서 주로 勞動과 資本 등 生産要素의 投入增加에 의해서 설명되는 바가 컸던 반면에,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初期인 1963~72년간은 이들 나라와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1972~92년간의 蓄與度가 급격히 減少하였기 때문에 全期間 우리나라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의 成長蓄與度 및 蓄與率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초 이후부터의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의 成長蓄與도가 급속히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⁷⁾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의 성장기여도는 直接的으로 추정하지 않고 다른 모든 成長要因의 합으로 설명되지 않는 「殘餘」要因으로 나타난 것으로, 産業生産性에 영향을 주는 많은 要因들 중에서 한 두가지 주요한 이유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 蓄與度の 감소원인을 직접 統計的으로 檢證하는 것은 방대한 작업을

7) Denison(1979)은 1973~76년간의 美國經濟에 있어서도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의 成長蓄與率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美國에서 殘餘要因의 蓄與率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한 두가지 주요한 이유로써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産業生産性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要因들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假說만을 結論으로 제시해 본다.

첫째,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반기에 輸入代替中心工業化戰略에서 輸出主導型戰略으로의 전환에 따라 對外開放을 향한 각종 政策的 改革을 단행한 바 있고, 그 결과로 Kim and Park(1985, p. 17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産業效率性的 向上을 기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改革效果는 70년대 중반경에 와서는 거의 消盡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1973~80년간에는 政府의 의욕적인 重化學工場建設計劃으로 인해서 輸出主導型戰略을 위한 對外開放政策이 후퇴하는 경향마저 보였기 때문이다.

둘째, 7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와 先進工業國간에 技術隔差가 크고, 우리나라는 아직 거의 모든 部門에서 世界的 技術水準에는 近接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때까지는 先進工業國家의 技術과 經營慣行을 뒤쫓아가려는(catch-up) 模倣努力만으로도 우리나라 産業은 높은 生産性向上을 기할 수 있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 우리와 先進國간 技術隔差의 축소로 模倣努力만으로는 쉽게 生産性向上을 기할 수 없게 되고 독자적인 技術開發과 革新努力를 통해서만 生産性向上을 이룩할 수 있는 어려운 工業發展段階에 도달한 것이다(金光錫·洪性德, 1992, pp. 132~133). 따라서 中期(1972~82)부터 나타나는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의 寄與度の 급격한 하락은 이를 반영한다고 보겠다.

셋째, 1973~80년간의 政府主導의 的욕적인 重化學工業建設計劃의 추진으로 特定産業에 대한 過剩投資를 초래하는 등 非效率的인 資源再配分問題를 야기했으며, 그 결과로 1979년 이후 80년대 초반에는 重化學工業投資調整問題를 야기하고, 또한 낮은 稼動率로 經營이 어려운 완공된 重化學工業에 대한 救濟金融事例도 많았던 것이다. 그 후 重化學工業이 1985년의 「플라자」合意 이후 三低好機의 도래로 輸出增大를 이룩함으로써 새로운 成長産業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도기적으로 1972~82년간에는 重化學工業에 대한 集中的 投資에도 불구하고 生産增加는 크지 못했으므로 결과적으로 生産性增加率의 急減을 가져왔다고 보겠다. 非住宅企業部門의 경우 1972~82년간에 資本投入增加에 의한 成長寄與도가 다른 기간보다 월등이 높아지고 그 대신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 寄與도는 급감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고 보겠다(表 7-1 참조). 그리고 1982~92년간의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의 成長寄與도는 그 전기간보다 0.3%포인트 정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80년대 후반 이후 重化學工業의 稼動率이 높아지고 새로운 成長産業으로 轉換될 수 있었던 것과 無關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1972~82년간의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 寄與度の 급감은 동 기간중의 높은 國際原油價格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두번에 걸친 世界的 石油波動的 발생

이 모두 이 기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國內産業의 에너지投入費用의 급상승을 초래함으로써 石油價格이 오르지 않은 그 전기간에 비해서 상당한 生産性低下 현상을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의 高石油價格時代에는 石油를 代替燃料로 바꾸거나 또는 既存施設의 熱效率을 높이기 위한 資本支出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資本支出도 長期的으로는 有益했을지 모르나 短期的으로는 低油價時代에는 不必要했을 추가적인 費用이었으며, 「殘餘」要因의 成長寄與率에 否定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가지 지적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經濟成長의 중요한 要因으로 작용했던 勞動投入의 증가율이 80년대 초반 이후 계속 鈍化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鈍化速度가 加速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勞動投入 증가율의 鈍化는 그만큼 勞動投入 이외의 다른 成長要因의 伸張으로 勞動投入

증가율의 鈍化에 따르는 成長寄與度의 감소를 相殺할 수 없는 한, 國內經濟成長率을 계속 鈍化시켜 갈 것이다. 그러면 勞動投入 증가율 둔화를 상쇄할 수 있는 代案은 무엇인가? 결국은 資本投入增大와 技術進步 및 기타 要因의 寄與度向上 이외에는 효과적인 對應策이 없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要素單位當 產出量增加를 설명하는 資源配分改善과 規模經濟利益 등의 효과는 高度成長에 따르는 부수적인 寄與度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높은 資本投入의 증가와 技術進步要因의 확대는 모두 技術革新이나 새로운 技術獲得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고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外國人投資 등의 확대를 통해서 尖端技術의 導入을 촉진하는 한편, 自體技術開發努力의 일환으로서의 R&D投資를 증대시키기 위한 對策이 앞으로의 持續的 成長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參 考 文 獻 ◁

- 經濟企劃院, 『建設業統計調查報告書』, 1973, 1976, 1979, 1981, 1984, 1988, 1991.
- 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_____, 『鑛工業센서스報告書』, 각 센서스 연도.
- _____,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각년도.
- _____, 『國富統計調查報告』, 1968, 1977, 1987.
- _____, 『都小賣業센서스報告書』, 1971, 1976, 1979, 1982,
- _____, 『都小賣業統計調查報告書』, 1988, 1990, 1992.

- _____, 『運輸業統計調查報告書』, 1976, 1978, 1980, 1981, 1986, 1988, 1991.
- _____,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 _____, 『主要經濟指標』, 1992.
- _____,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86.
- _____,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0, 1975.
- _____, 『韓國統計年鑑』, 각년도.
- 勞動部,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 _____,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 農水産部, 『農家經濟, 農産物生産費, 糧穀消費量 調査結果報告』, 1971, 1983, 1986, 1987, 1989, 1992.
- _____, 『農林水産統計年報』, 각년도.
- _____, 『農林統計年報』, 각년도.
- 教育部, 『文教統計年報』, 각년도.
- 韓國開發研究院, 「KDI DB資料」.
- 韓國銀行, 『國民所得計定』, 1984.
- _____, 『新國民計定』, 1986.
- _____, 『국민계정』, 1990.
- _____, 『1991年 國民計定(確定)』, 1993.
- _____, 『1992年 國民計定(暫定)』, 1993.
- _____, 『韓國의 國民所得』, 1982.
- _____,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 _____, 『産業聯關表』, 각 작성연도.
- _____,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 U. S. Department of Commerce, "Survey of Current Business," June 1990.
- 金光錫, 「産業聯關表의 1968年 不變價格으로의 換價」, 『韓國開發研究』, 1979 여름.
- _____. 朴垞卿,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25, 1979.
- _____. 洪性德, 『名目 및 實效保護率構造의 長期的 變化』, 韓國開發研究院 研究 · 調査報告 82-02, 1982.
- _____. 洪性德, 『製造業의 總要素生産性 動向과 그 決定要因』,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報告書, 92-06, 1992.
- _____. L. E. 웨스트팔, 『韓國의 外換 · 貿易政策』,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9, 1979.
- 朴垞卿, 「成長潛在力과 經濟運用」, 『KDI 分期別 經濟展望』, 1990 여름, 韓國開發研究院.
- _____. 金政鎬, 『構造變化와 雇傭問題』,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報告書 92-05, 1992.
- 洪性德, 『韓國經濟의 要素生産性 成長要因 推定』, 韓國開發研究院 政策研究資料 91-02, 1991.
- _____, 『名目 및 實效保護率의 構造變化 (1975~1990)』, 韓國開發研究院 政策研究資料 92-01, 1992.
- Denison, Edward F., *Accounting for the United State Economic Growth, 1929 - 69*,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 _____, *Accounting for Slower Economic*

- Growth: The United States in the 1970s*,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9.
- _____, *Why Growth Rate Differ: Postwar Experience in Nine Western Countrie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7.
- _____, *Trends in American Economic Growth, 1929–1982*,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 _____ and William K. Chung, *How Japan's Economy Grew So Fast*,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6.
- Kim, Kwangsuk and Joonkyung Park,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1963–1982*, KDI, 1985.
- Kravis, Irving B., and Associates, *World Product Incom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Real Gross Produc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 Nadiri, M. Ishag, "Some Approaches to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84, 1970.
- Pyo, Hak-kil, *A Synthetic Estimate of the National Wealth of Korea*, KDI Working Paper No. 9212, 1992.

研究叢書案內

- | | |
|--|--|
| <p>①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A 5 新/ 122쪽
 半洋裝/ 3,000원</p> <p>②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A 5 新/ 158쪽
 半洋裝/ 3,600원</p> <p>③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紈 著 A 5 新/ 250쪽
 半洋裝/ 5,600원</p> <p>④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A 5 新/ 146쪽
 半洋裝/ 3,000원</p> <p>⑤ 農産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共著 A 5 新/ 318쪽
 柳炳瑞 共著 A 5 新/ 7,000원</p> <p>⑥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編 A 5 新/ 254쪽
 A.O. 크루거 編 A 5 新/ 6,000원</p> <p>⑦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淇 著 A 5 新/ 198쪽
 半洋裝/ 4,600원</p> <p>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A 5 新/ 294쪽
 半洋裝/ 6,600원</p> <p>⑧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金光錫 共著 A 5 新/ 336쪽
 L.E. 웨스트팔 共著 A 5 新/ 7,600원</p> <p>⑩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A 5 新/ 236쪽
 半洋裝/ 5,000원</p> <p>⑪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A 5 新/ 202쪽
 半洋裝/ 4,600원</p> | <p>⑫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季 著 A 5 新/ 250쪽
 半洋裝/ 5,600원</p> <p>⑬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A 5 新/ 508쪽
 半洋裝/ 11,000원</p> <p>⑭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教 編 A 5 新/ 492쪽
 半洋裝/ 11,000원</p> <p>⑮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教 編 A 5 新/ 342쪽
 半洋裝/ 7,600원</p> <p>⑯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A 5 新/ 532쪽
 半洋裝/ 11,600원</p> <p>⑰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A 5 新/ 252쪽
 半洋裝/ 5,600원</p> <p>⑱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A 5 新/ 370쪽
 半洋裝/ 8,000원</p> <p>⑲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A 5 新/ 244쪽
 半洋裝/ 5,600원</p> <p>⑳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A 5 新/ 214쪽
 半洋裝/ 4,600원</p> <p>㉑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A 5 新/ 410쪽
 半洋裝/ 9,000원</p> <p>㉒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共著 A 5 新/ 194쪽
 M. 로머 共著 A 5 新/ 4,000원</p> |
|--|--|

- 23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A 5 新/ 306쪽
半洋裝/ 7,000원
-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A 5 新/ 204쪽
半洋裝/ 4,600원
- 25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共著 A 5 新/ 166쪽
朴埈卿 共著 半洋裝/ 3,600원
- 26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A 5 新/ 198쪽
半洋裝/ 4,600원
- 27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共著 A 5 新/ 250쪽
林栽煥 共著 半洋裝/ 5,600원
- 28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A 5 新/ 180쪽
半洋裝/ 4,000원
- 29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A 5 新/ 192쪽
半洋裝/ 4,600원
- 30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A 5 新/ 470쪽
半洋裝/ 10,600원
- 31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A 5 新/ 410쪽
半洋裝/ 9,000원
- 32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A 5 新/ 272쪽
半洋裝/ 6,000원
- 33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A 5 新/ 236쪽
半洋裝/ 5,000원
- 34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共著 A 5 新/ 270쪽
M.S. 밀즈 共著 半洋裝/ 6,000원
- 35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A 5 新/ 308쪽
半洋裝/ 7,000원
- 36 韓國工業化과 二 要因
金光錫 著 A 5 新/ 272쪽
半洋裝/ 6,000원
- 37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清 共著 A 5 新/ 336쪽
金學泳 共著 半洋裝/ 7,600원
- 38 韓國의 教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外 A 5 新/ 272쪽
N.F. 맥긴 外 半洋裝/ 6,000원
- 39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크루거 著 A 5 新/ 256쪽
田英鶴 譯 半洋裝/ 5,600원
- 40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A 5 新/ 414쪽
半洋裝/ 9,000원
- 41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A 5 新/ 384쪽
半洋裝/ 8,600원
- 42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 1910~75
A. Keidel 著 A 5 新/ 268쪽
半洋裝/ 6,000원
- 43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共著 A 5 新/ 396쪽
潘性執 共著 半洋裝/ 9,000원
D.H. 피킨스
- 44 需給構造와 物價政策
李煥 著 A 5 新/ 288쪽
半洋裝/ 6,000원
- 45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の 役割
司空臺 共著 A 5 新/ 410쪽
LP. 존스 共著 半洋裝/ 9,000원

- 46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清 著 A 5 新/ 214쪽
半洋裝/ 4,600원
- 47 **韓國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外 A 5 新/ 530쪽
E.S. 메이슨 半洋裝/ 11,600원
- 48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A 5 新/ 228쪽
半洋裝/ 5,000원
- 49 **韓國의 所得分配의 決定要因(下)**
朱鶴中 著 A 5 新/ 432쪽
半洋裝/ 9,600원
- 50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延河清 共著 A 5 新/ 428쪽
閔載成 半洋裝/ 9,600원
- 51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
金仁秀 共著 A 5 新/ 402쪽
李軫周 半洋裝/ 9,000원
- 52 **韓國의 經濟開發과 人口政策**
R. 레페트 外 A 5 新/ 328쪽
金善雄 半洋裝/ 7,000원
- 53 **韓國의 金融發展: 1945~80**
D.C. 글 共著 A 5 新/ 334쪽
朴英哲 半洋裝/ 7,600원
- 54 **韓國의 貨金構造**
朴桓求 共著 A 5 新/ 440쪽
朴世逸 半洋裝/ 10,000원
- 55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金光錫 共著 A 5 新/ 238쪽
朴竣卿 半洋裝/ 5,400원
- 56 **轉換期の 韓國經濟와 金融政策**
金重雄 共著 A 5 新/ 354쪽
南相祐 半洋裝/ 8,000원
- 57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延河清 著 A 5 新/ 348쪽
半洋裝/ 8,000원
- 58 **地方財政調整制度와 財源配分**
李啓植 著 A 5 新/ 280쪽
半洋裝/ 6,000원
- 59 **벤처캐피탈의 役割과 課題**
姜文秀 著 A 5 新/ 236쪽
半洋裝/ 5,000원
- 60 **家計貯蓄과 租稅政策**
李啓植 著 A 5 新/ 366쪽
半洋裝/ 8,000원
- 61 **韓國의 公企業管理政策**
宋大熙 著 A 5 新/ 310쪽
半洋裝/ 8,400원
- 62 **韓國經濟의 歷史的 照明**
具本湖 編 A 5 新/ 368쪽
半洋裝/ 11,000원
- 63 **分配不均等の 實態와 主要政策課題**
權純源 外 A 5 新/ 462쪽
高日東 半洋裝/ 12,000원
- 64 **韓國 財閥部門의 經濟分析**
丁炳然 共著 A 5 新/ 324쪽
梁英植 半洋裝/ 9,200원
- 65 **市場去來의 規制와 競爭政策**
申光湜 著 A 5 新/ 426쪽
半洋裝/ 12,000원
- 66 **企業結合—經濟的 效果와 規制**
李奎億 共著 A 5 新/ 506쪽
朴炳亨 半洋裝/ 11,000원

新 刊 案 內

證券先物市場의 開設方案

半洋裝 / A5新 / 76쪽 / 定價 2,400원

金 聖 眞 著

韓國의 老齡化 推移와 老人福祉對策

半洋裝 / A5新 / 222쪽 / 定價 7,000원

閔 載 成 外

地域金融의 活性化와 새마을금고의 發展

半洋裝 / A5新 / 404쪽 / 定價 12,000원

李 德 勳 外

産業成長 및 構造變化에 대한 要因別 寄與度分析

半洋裝 / A5新 / 154쪽 / 定價 4,000원

洪 性 德 著

産災保險 財政運營方式 開發에 관한 研究

半洋裝 / A5新 / 360쪽 / 定價 11,000원

閔 載 成 外

北韓財政의 現況과 推移

半洋裝 / A5新 / 110쪽 / 定價 3,000원

朴 進 著

環境改善負擔金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半洋裝 / A5新 / 102쪽 / 定價 3,000원

柳 鐘 權 著

國際化時代의 韓國經濟運營

半洋裝 / A5新 / 136쪽 / 定價 5,200원

左 承 喜 著

KDI 圖書會員制 案內

會員에 대한 特典

- 會員加入期間(1년)중 本 研究院이 發刊하는 一切의 刊行物을 郵送함.
(단,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제외)

會 費 : 100,000원

加入方法

- 직접 本院 發刊資料相談室에 拂入하거나,
- 가까운 郵遞局에서 本院 郵便對替計座(計座番號 : 010983 - 31 - 0514919)에 拂入하면 됨.

問 議 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의 41 우편번호 : 130-012
KDI발간자료상담실(Tel. 960/3283, 960/4811(交) 305)